

중도통합신당 광주서 활로찾기

오늘 5·18 국립묘지 참배후 정책방향 제시

DJ “중도통합 기치 들고 나선 건 매우 적절”

열린우리당 탈당과 의원들로 구성된 ‘중도 통합신당 모임’ 의원 23명이 14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민심에 탈당과 통합신당 창당의 진정성을 호소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명분 없는 탈당’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렸던 ‘중도 통합신당 모임’은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중도통합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은 기자와 만나 “5·18 국립묘지를 참배, 광주 영령 앞에 통합신당 창당에 밀일이 되겠다는 다짐을 할 것”이라며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 창당될 통합신당의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대변인은 “통합신당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광주 정신 계승과 대북 포용

정책 유지, 민생 경제 회복 등이 될 것”이라며 “또한, 광주 시민들에게 탈당 및 통합신당 창당의 진정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후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며 ‘명분 없는 탈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적 차별성 때문에 탈당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탈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도 통합신당 모임’ 의원들이 광주 방문에 나선 것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광주 방문을 계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한편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통합신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광주·전남지역 민

심에 통합의 진정성을 호소하겠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중도 통합신당 모임’이 전선의 각을 세우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광주·전남 민심이 중도통합신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 통합신당 모임’ 의원들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도통합의 기치를 들고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옳다”며 “역사에서도 어느 한쪽의 길로 갔다가 성공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유럽도 중도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하도록 중도 통합에 나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북관 변했다

美 하버드대 강연서 ‘원칙있는 포용정책’ 언급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원칙있는 포용정책’에 대해 언급, 그의 대북관이 전향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초청 강연에서 “만약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원칙있는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해 당내 대권주자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던 만큼 이날 ‘포용정책 자체에 대한 원칙적 계승’을 거론한 것은 입장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란 평가다. 한 측근 의원은 “포용정책에 대한 원칙적 찬성이라는 말보다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라는 말이 더 전향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란 것 역시 박 전 대표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원칙적 포용정책을 선언한 게 기가운데는 6자회담 타결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핵폐기 초기 이행을 위해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도 앞으로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 ‘국민승리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인봉 전 의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X파일 주장과 관련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재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의원과 박형준(세번째)의원이 다른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중심 통합 현실성 없다”

■ 광주 찾은 정동영 전 의장 기자회견담

“대북송금특검 반대 못한 것 죄송”

정동영(사진)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13일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오찬 기자회견담회에서 “14일 전당대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결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이제 끝났다”며 “우리당과 통합신당이 따로 갈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포기야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또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인해 참여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확대하지 못하고, 남북간 신뢰가 깨졌으며 대연정 제안은 민주화와 개혁, 진보적 성향의 광주·전남 민심에 역행했다”며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을 반대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모토로 내걸었으나 실패했다”며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와 영남의 기득권적 지역주의를 동일하게 본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이 전 시장이 20대부터 근무했던 기업은 망하고, 자신은 억만장자가 됐다”며 “그는 재벌위주, 개발위주의 경제관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13일 광주 하남산업단지 방문때 근로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부운하 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성이 있으면 일본이 훨씬 전에 운하 건설을 했을 것”이라며 “운하건설 발상은 정치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경부운하가 아니라 ‘정치운하’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개혁 논란과 관련, 정 전 의장은 “개혁을 돈으로 따지자면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으나 개혁을 제안한 노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의 정서와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생각이 현실적 장애물이 있다”면서도 “대선후보들의 토론 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기자회견담회에 앞서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고,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명박식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못 이뤄”

전정배 의원

열린우리당 탈당 후 ‘민생정치 준비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정배 의원은 13일 “이명박식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고 이명박식 경제정책으로는 성장도 민생안정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전 시장 같은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무분별한 유회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피우기’라고 한다”며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게서 경영의 기본을 배운 분이 왜 민족에는 배운 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공약인 경부 내륙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개발독재시대 예나 통하던 공약을 내세우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경부운하를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해 의미를 찾는 건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 사고로 3만 달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인봉 윤리위 회부 결정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한나라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 의를 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

한 도덕성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법률특보 정인봉 변호사를 당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정 변호사가 갖고 있다는 ‘이명박 X-파일’을 즉각 당 경

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이 조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즉각 발효된다”면서 “정 변호사에게 자료를 오늘 중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시장재임시 비리 의혹’ 등 추측 난무

■ 정인봉 ‘이명박 X-파일’ 있다

13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정인봉(사진) 박근혜 법률특보가 주장한 ‘이명박 X-파일’의 실체는 무엇일까. 내용에 따라서는 당내 경선판도는 물론 올 대선정국에 작지 않은 파괴력을 미칠 수도 있어 실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 그가 준비한 ‘카드’에는 이 전 시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많다. 이 전 시장 측이 ‘이미 검증받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는 ‘국민정서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때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혹만

로 당사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등기부등본부터 검토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비리 의혹도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 청계천 복원, 뉴타운 건설 등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13일 MBC라디오에 출연, “공인으로서 도덕성 문제에 접근했다”고 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이 전 시장이 지난 15대 총선에서 중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재판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 당시의 재판 관련 기록이나 증거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변호사의 ‘이명박 X-파일’과 관련한 논쟁의 또 다른 초점은 박 전 대표와의 교감에 있었느냐의 여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1777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1777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1777

배짱질기
1개 구매시 수 32,000원
2개 구매시 수 00,000원
문의: 010-9014-1124

SELF WINE
자기 만든 와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 만든 와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 만든 와인 누구나 할 수 있다